

중국산 AI 인프라 규제는 단기 주가에 부정적



Hana China Weekly | 2026.8.28

Analyst 백승혜 sh_baek@hanafn.com

Analyst 송예지 yeajisong@hanafn.com

RA 안기량 giryangan@hanafn.com

주요 이슈 점검

중지쉬창(300308.CH): SK하이닉스 차세대 CPO 개발 공식화로 중국 광모듈 관련주 주가 급락

- 8/24 SK하이닉스의 차세대 CPO 기술 투자 발표 이후 플래거블 광모듈 시장 잠식 우려가 재확산되며 중지쉬창을 포함한 중국 광모듈 대장주가 일제히 급락세 시현. 중지쉬창은 장중 -10%까지 밀리며 시총이 1조 위안을 잠시 밑돌았다 종가 A주 -7.7%로 하락 마감. 중지쉬창은 2027년까지 CPO 기술 확보를 목표 중이며, CPO 기술 도입 초기 중지쉬창이 NPO 기술과 3.2T 제품에서 기술적 돌파를 이뤄낼 경우 CPO 기술 도입에 따른 부정적 실적 영향을 상쇄할 것으로 예상. 중지쉬창은 코히어런트 광통신, 실리콘 포토닉스 분야기술과 향후 상용화될 3.2T 광트랜시버 시장에서도 선도 업체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높으며, 성공적인 NPO 기술 개발이 향후 주가에 중요한 업사이드 요인이 될 수 있음. 다만, 지난 8월 초 미국 정부의 중국산 광모듈 수입 제한 검토 보도로 투자자センチ먼트가 크게 악화된 가운데 CPO 이슈가 지속적으로 부각되고 있어 단기적으로 주가는 약세 흐름 지속할 가능성.

사원전기(002028.SZ): 미국의 외국산 전력망 장비 규제로 주가 급락

- 사원전기의 주가는 미국의 외국산 전력망 장비 규제로 8/27-28 이틀 연속 -10% 급락세 시현. 8/26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미국 전력망에서 일부 외국산 장비의 신규 구매·설치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 사이버보안 및 운영 리스크가 있는 외국산 대규모 전력시스템 장비와 관련 핵심 소프트웨어·디지털 기능이 규제 대상이며, 기존 설치 장비에도 지속 사용을 위한 조건을 부과할 방침. 사원전기의 1H26 해외 매출 비중은 29% 기록. 2025년 대미 수출 비중은 2% 미만인 것으로 파악, 사업 지역도 100개 이상 국가에 분산돼 있어 직접적인 실적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

북방화창(002371.CH): 2Q26 Re - 매출, 순이익 컨센서스 하회했으나, 신규 수주 기대감 여전히 유효

- 북방화창의 2Q26 매출은 98억위안(YoY +24.0%)로 컨센서스 14.9% 하회, 순이익은 17억위안(YoY +6.6%)로 컨센서스 3.1% 하회. 2분기 매출은 일부 장비 검수 및 매출 인식 지연에 따라 시장 기대치 대비 하회. 선행지표인 신규 장비 주문 관련 지표는 여전히 견조한 흐름 유지. 2분기 말 재고는 305억위안으로 1 분기 말 286억위안 대비 증가했고, 계약부채도 1분기 42억위안에서 2분기 53억위안으로 증가.
- 다만, 비용 증가와 가격 하락에 따라 수익성은 전분기 대비 약화. 2분기 GPM은 39.3%로 QoQ 1.4%p 하락. 신제품의 고객사 검증 과정에서 부품 업그레이드 및 개선 비용이 증가한 가운데, 일부 대량 구매 고객에 대한 가격 할인도 수익성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 그 외 R&D 비용 증가와 판매비 증가도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 이에 따라 2Q26 순이익은 매출 성장률(YoY +24%) 크게 하회하는 +6.6% 성장 시현.

중지쉬창

상장 국가

중국 본토/홍콩

섹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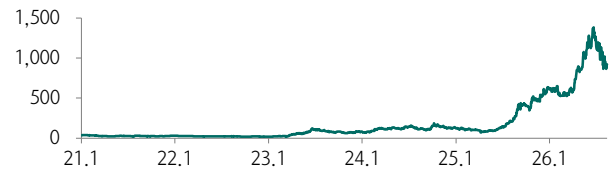
통신 및 네트워킹

시가총액(조원)

195.4

최근 주가 추이

(CNY)



SK하이닉스 차세대 CPO 개발 공식화로 중국 광모듈 관련주 주가 급락

- 8/24 SK하이닉스의 차세대 CPO 기술 투자 발표 이후 플러거블 광모듈 시장 잠식 우려가 재확산되며 중지쉬창을 포함한 중국 광모듈 대장주가 일제히 급락세 시현. 중지쉬창은 장중 -10%까지 밀리며 시총이 1조 위안을 잠시 밀었다가 종가 A주 -7.7%로 하락 마감. 광모듈 3대장(중지쉬창·신이성·텐푸통신)의 하루 시총 증발액이 1,544억위안, 중지쉬창은 순매도액 33억위안으로 A주 광모듈 테마 내 1위 기록. 엔비디아의 CPO 기술 개발 공식화 이후 지난 8/20 SK하이닉스가 차세대 CPO 기술 로드맵을 공식적으로 공개함에 따라 기존 플러거블 광모듈 시장이 차세대 광연결 기술인 CPO로 대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재부각.
- 8/23 중지쉬창 경영진은 2027년 1.6T·800G 제품 주문이 2026년 대비 빠르게 늘고 있으며, 가격 하락폭은 시장 우려와 달리 완만한 상황이라고 언급. 또한, 중지쉬창도 2027년까지 CPO 기술 확보를 목표 중이며, CPO 기술 도입 초기 중지쉬창이 NPO 기술과 3.2T 제품에서 기술적 돌파를 이뤄낼 경우 CPO 기술 도입에 따른 부정적 실적 영향을 상쇄할 것으로 예상. 중지쉬창은 코히어런트 광통신, 실리콘 포토닉스 분야기술과 향후 상용화될 3.2T 광트랜시버 시장에서도 선도 업체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높으며, 성공적인 NPO 기술 개발이 향후 주가에 중요한 업사이드 요인이 될 수 있음. 다만, 지난 8월 초 미국 정부의 중국산 광모듈 수입 제한 검토 보도로 투자자センチ먼트가 악화된 가운데 CPO 이슈가 지속적으로 부각되고 있어 단기적으로 주가는 약세 흐름 지속할 가능성.

강구통 리스트 편입으로 향후 본토 자금 유입 기대

- 한편, 중지쉬창은 8/27부터 H주가 강구통 매매 종목에 편입. 7/30 홍콩 상장 이후 약 한 달 만에 본토 투자자의 남향자금을 통한 직접 매매가 가능해지면서 투자자 기반 확대와 수급 개선이 기대.

북방화창

상장 국가

중국 본토

섹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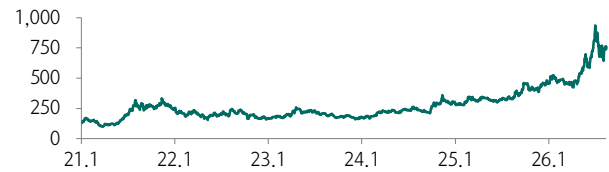
반도체 장비 및 테스트

시가총액(조원)

103.3

최근 주가 추이

(CNY)



2Q26 Re – 매출, 순이익 컨센서스 하회했으나, 신규 수주 기대감 여전히 유효

- 북방화창은 8/25 장마감 후 2026년 2분기 실적을 발표. 매출액은 98.4억위안(YoY +24.0%)로 컨센서스 14.9% 하회, 순이익은 17.3억위안(YoY +6.6%)로 컨센서스 3.1% 하회. 2분기 매출은 일부 장비 검수 및 매출 인식 지연에 따라 시장 기대치 대비 하회. 선행지표인 신규 장비 주문 관련 지표는 여전히 견조한 흐름 유지. 2분기 말 재고는 305억위안으로 1 분기 말 286억위안 대비 증가했고, 계약부채도 1분기 42억위안에서 2분기 53억위안으로 증가.
- 다만, 비용 증가와 가격 하락에 따라 수익성은 전분기 대비 약화. 2분기 GPM은 39.3%로 QoQ 1.4%p 하락. 신제품의 고객사 검증 과정에서 부품 업그레이드 및 개선 비용이 증가한 가운데, 일부 대량 구매 고객에 대한 가격 할인도 수익성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 그 외 R&D 비용 증가와 판매비 증가도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 북방화창의 상반기 R&D 투자는 37.06억위안(YoY +27.1%)으로 증가했으며, 비용으로 인식된 R&D 투자는 26.8억위안으로 28.9% 증가. 이에 따라 2Q26 순이익은 매출 성장률(YoY +24%) 크게 하회하는 6.6%에 그침.
- 북방화창은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기반으로 기존 장비의 성능 고도화와 신규 공정 장비 라인업 확대를 병행 중이며, 현재 식각, 박막증착, 열처리, 습식 세정, 이온주입, 코팅·현상, 본딩 등 플랫폼형 장비 포트폴리오를 구축. 주력 제품의 고객사 내 점유율 확대와 함께 다수의 신규 장비가 고객사 검증을 거쳐 양산 공급 단계에 진입 중.

CATL

상장 국가

중국 본토/홍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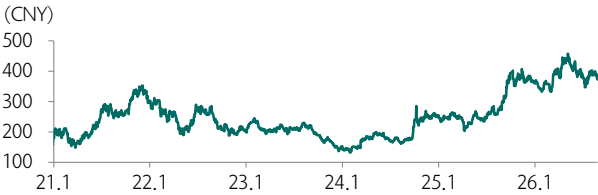
섹터

전기 부품 및 장비

시가총액(조원)

359.3

최근 주가 추이



젠사워 리튬 광산 환경영향평가 재가동 절차 중단

- 8/26 이춘시 정부는 CATL 젠사워 리튬 광산의 환경영향평가 접수 예정 공시를 철회. 앞서 8/17 이춘시 생태환경국은 해당 프로젝트의 환경영향평가 서류를 접수할 예정이라고 공고한 바 있음. 이번 공시 철회로 광산 재가동 절차가 중단되고 관련 승인 일정도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재가동 시점의 불확실성이 확대. 해당 광산은 2025년 8월 채굴허가증 만료 이후 가동이 중단된 상태이며, 가동 당시 연간 탄산리튬 생산능력은 약 10만톤으로 중국 전체 생산량의 약 8~10%를 차지.

중국 최대 대형 트럭 배터리 사업자 Qiyuan 지분 인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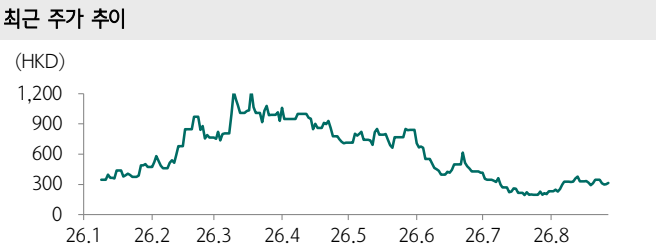
- 8/25 CATL은 중국 최대 대형트럭 배터리 교환망 사업자 Qiyuan Green Power 지분 24.9%를 25.6억위안에 인수, 거래 완료 후 최대주주 등극 전망. Qiyuan은 중국 국유기업 국가전력투자그룹(SPIC)의 계열사로 2025년 208개 도시에서 충전·교환소 1,600개 이상 운영 중. 이번 인수를 통해 CATL은 Qiyuan의 후방 장착형 배터리 교환 방식과 자체 개발한 Qiji의 새시형 배터리 방식을 통합. Qiyuan은 기존 중국 배터리 교환형 대형트럭 80%와 호환되고 광산·항만 등에 사용, Qiji는 고속도로 장거리 물류에 초점. Qiji는 2025년 기준 약 300개의 대형트럭 배터리 교환소를 운영했으며, 2026년 900개까지 확대 예정.

자체 이커머스 플랫폼 출시, 소규모 ESS 판매

- 8/21 CATL은 자체 이커머스 플랫폼을 출시해 소규모 ESS 업체 대상 직접 판매를 시작. 베타 테스트 기간 확보한 1,800개 이상의 ESS 업체가 플랫폼을 이용 중이며, ESS 제품은 최소 3박스부터 주문 가능. 소량 주문에도 대형 고객과 동일한 5년 품질보증을 제공하며 배송기간은 3~5일 이내. 해당 플랫폼은 유통업체를 거치지 않는 직접 판매를 통해 주거용 및 소규모 상업용 고객의 분산형 태양광·ESS 연계 수요를 공략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

미니맥스

상장 국가
홍콩
섹터
IT 서비스 및 컨설팅
시가총액(조원)
19.9



1H26 실적: 매출과 순손실 모두 긍정적이나 GPM은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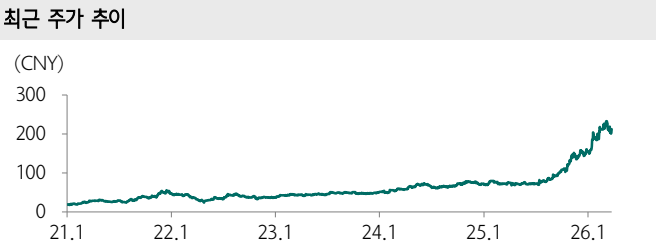
- 8/26 홍콩장 마감 후 상반기 실적을 발표. 매출은 1.2억달러(YoY +283.1%)로 급증했으나 컨센서스 18.3% 하회. 당기순손실은 3.6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1.0% 축소, 컨센서스 0.2% 하회. 매출총이익은 2,081만달러(YoY +464.8%), 매출총이익률은 전년 동기 12.1%에서 17.9%로 개선. 가파른 성장세에도 흑자 전환까지는 아직 시간이 필요, 컴퓨팅 선투자로 적자가 지속되는 국면에 위치한 것으로 판단. 판매비가 전년 동기 3,280만달러에서 2,700만달러로 17.9% 감소, 이는 비용 효율화 측면에서 긍정적.
- 다만 M3 출시 초기 무료 Token 제공 영향으로 GPM은 2H25 33.7%에서 GPM 17.9%(YoY +5.8%p) 까지 하락했고, R&D와 관리비 증가로 적자폭도 확대. 경영진은 8월 ARR 8억달러 및 연말 10억달러 목표에 대한 자신감을 유지했으며, 향후 발표될 신제품 성과에 따라 추가 가이던스 상향 가능성을 열어둠. 현재 M3 모델 가격이 GPT 계열 대비 크게 낮은 만큼 M3 Pro 출시 이후 가격 인상 여지도 존재. 자체 컴퓨팅 인프라와 외부 파트너 활용을 병행할 수 있어 차세대 모델 개발에 따른 단기 Capex 부담도 제한적일 전망.

멀티모달 창작 에이전트 'MiniMax Design' 출시

- 멀티모달 창작 에이전트 워크스테이션 'MiniMax Design'을 출시. 간단한 프롬프트만 입력하면 영상 생성의 전 과정을 에이전트가 처리하는 상업 콘텐츠 제작 플랫폼으로, 자사 H3 모델을 기반으로 언어·이미지·영상·음성 4개 전문 에이전트가 병렬 실행되는 구조. 이는 콘텐츠 제작을 겨냥하는 행보로 AI 창작 도구의 상업화 확산이 부각되는 모습. 발표 후 8/21 미니맥스 주가는 11.9% 상승 마감.

사원전기

상장 국가
중국 본토
섹터
산업재
시가총액(조원)
2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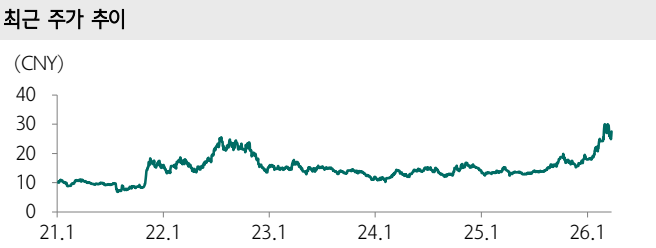


미국의 외국산 전력망 장비 규제로 주가 급락

- 미국의 외국산 전력망 장비 규제로 주가 8/27-28 이틀 연속 -10% 급락. 8/26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미국 전력망에서 일부 외국산 장비의 신규 구매·설치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 사이버보안 및 운영 리스크가 있는 외국산 대규모 전력시스템 장비와 관련 핵심 소프트웨어·디지털 기능이 규제 대상이며, 기존 설치 장비에도 지속 사용을 위한 조건을 부과할 방침. 특정 국가를 명시하지 않았으나, 시장은 중국의 기술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 구체적인 규제 대상 국가·기업은 향후 120일 내 확정될 예정.
- 사원전기의 1H26 해외 매출 비중은 29% 기록. 2025년 대미 수출 비중은 2% 미만인 것으로 파악, 사업 지역도 100개 이상 국가에 분산돼 있어 직접적인 실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다만 미국을 시작으로 중국산 전력장비에 대한 규제가 다른 국가로 확산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중장기 해외 사업 성장성에 대한 우려가 주가에 반영된 것으로 판단.

중천과기

상장 국가
중국 본토
섹터
산업재
시가총액(조원)
25.1



2Q26 매출/순이익 YoY +29%/+56% 증가, 해외 광섬유 매출 YoY +80%

- 2Q26 중천과기 매출은 178억위안으로 YoY +29% 증가, 순이익은 15억위안으로 YoY +56% 증가. 전사 GPM은 17.1%로 YoY +1.7%p 개선, 순이익률은 8.3%로 YoY +1.5%p 개선.
- AI/광통신: 1H26 AI 컴퓨팅용 C.657.A2 광섬유 출하량은 YoY 2배 이상 증가. 인터넷 기업 데이터센터용 MPO 광섬유 패치코드 및 부품 프로젝트 15억위안 이상 수주. 해외 광섬유 매출액 YoY 80% 이상 증가. 800V HVDC, 액랭 CDU, 224G 고속 구리케이블, 고속 광모듈까지 데이터센터 제품군을 확대.
- 해저케이블: 500kV 초고압급 해저케이블 매출이 해양사업 매출의 40% 이상을 차지, 해양사업 GPM 개선 견인. 하반기 독일·폴란드 등 유럽 지역 고압 해저케이블 프로젝트 인도 예정, 해외 고부가가치 시장 개척 성과가 본격화. 7월 말 기준 에너지 네트워크 사업 수주잔고는 약 330억위안, 이 중 해양사업이 약 113억위안.
- ESS: 1H26 ESS 출하량 YoY +130% 증가, 해외 ESS 매출 YoY +76% 증가.

동방전기

상장 국가

중국 본토

섹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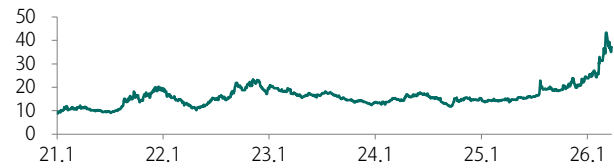
산업재

시가총액(조원)

18.4

최근 주가 추이

(USD)



2Q26 매출/순이익 컨센서스 하회, 수익성은 개선

- 2Q26 매출은 212억위안(YoY -2%)으로 컨센서스를 8% 하회했고, 순이익은 11억위안(YoY +49%)으로 컨센서스를 34% 하회. 매출 성장률은 6개 분기 만에 역성장 전환했으나, 순이익률은 5.3%로 YoY +1.8%p 개선. 석탄화력 입찰가격 상승, 수력발전 프로젝트의 마진 개선으로 전사 수익성 제고, 투자수익 및 공정가치 변동이익 증가가 추가적으로 기여.

풍력 사업 매출 감소, 수익성 악화, 업황 및 계절성 영향

- 1H26 매출의 76%를 차지하는 에너지 장비 매출은 294억위안으로 YoY +4% 증가. 석탄화력/수력/가스발전/원자력 매출은 각각 YoY +16%/+54%/+25%/+2% 증가한 반면, 풍력 매출은 YoY -34% 감소. 풍력 사업은 매출 감소와 수익성 악화가 동시에 나타났으며, GPM은 3.7%로 YoY -3.7%p 하락. 풍력 자회사도 적자전환했으며, 공시에 풍력 업황 및 계절성 영향에 따른 현금흐름 악화를 언급한 점을 감안하면 상반기 풍력 사업 부진에도 관련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 1H26 제조서비스 매출은 YoY -12% 감소했고, 신항산업 매출은 29억위안으로 YoY +7% 증가. 1H26 에너지 장비 GPM은 14.1%로 YoY +0.3%p 개선됐으나, 신항산업 GPM은 11.0%로 YoY -7.2%p 하락. 다만 제조서비스 GPM이 32.6%로 YoY +5.4%p 개선되며 전사 수익성을 방어.

상반기 신규 수주 YoY +7% 증가, 해외 고객사 문의 확대

- 상반기 누적 신규 수주는 699억위안으로 YoY +7% 증가해 매출 성장 대비 견조한 수주 흐름을 지속. 특히 석탄화력 장비의 단위 낙찰가격과 수력발전 장비의 입찰 GPM이 전년 대비 상승해 향후 수익성 개선에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
- 현재 해외 고객사 문의 물량은 100대를 상회한 것으로 파악. 4월 체결된 캐나다 프로젝트의 데이터센터용 가스터빈 10대 중 2대는 2026년, 8대는 2027년 인도 예정. 추가 10대 수주는 2027년 초까지 결정될 것.

AI 인프라/반도체

YMTC(비상장): 상하이거래소, 과창판 IPO 수리

- 8/21 상하이거래소가 YMTC의 과창판 IPO를 수리한 것으로 확인됨. YMTC는 330억위안 조달 계획, CXMT(295억)와 SMIC(200억)를 넘어 과창판 사상 최대 조달 규모. 19.8억~24.3억 주(상장 후 지분 10~12%)를 발행해 208억위안은 양산 라인 기술 업그레이드, 122억위안은 R&D에 투입 예정. 트렌드포스 기준 1Q26 NAND 플래시 매출과 출하량 모두 글로벌 3위, 중국 1위 차지. 1분기 실적은 낸드 업황 급반등에 힘입어 매출 470.4억위안, 순이익 333.8억위안을 기록.

SMIC(688981.SH/0981.HK): 골드만삭스, 중국 첨단 반도체 공급 급증 전망

- 8/24 SCMP에 따르면 골드만삭스가 중국의 첨단 반도체 공급이 2035년까지 급증하며 자급 격차를 크게 좁힐 것으로 전망. 7나노 이하 첨단 공정 웨이퍼 공급이 2025~35년 연평균 46% 증가해 내수 수요 증가율 17%을 크게 웃돌면서, 공급-수요 격차가 2025년 92%에서 2035년 34%로 축소될 것으로 추정. 첨단 반도체 산업 성장은 중국 최대 파운드리 SMIC의 공격적 증설과 수율 개선이 견인하는데, 골드만삭스는 SMIC가 2026~31년 매년 첨단 웨이퍼 월 3만~5만장, 이후 2035년까지 매년 2만장을 추가하고 수율은 2026년 23%에서 2030년 50%-2035년 75%로 개선될 것으로 가정.

엔비쿨(002837.SZ): 경쟁 심화와 매출 인식 지연, 외형 성장 부담으로 작용

- 8/24 2분기 실적을 발표. 매출액은 18.4억위안(YoY +12.2%)로 컨센서스 10.2% 하회, 순이익은 1.8억위안(YoY +5.1%)로 컨센서스 4.8% 상회. 중국 내 데이터센터 프로젝트 경쟁 심화와 일부 해외 프로젝트의 매출 인식 지연이 외형 성장에 부담으로 작용. 1분기에는 환손실과 중국 내 IDC 프로젝트의 건설 정산 및 대금 회수 지연이 이익에 부담으로 작용했으나, 2분기에는 관련 영향이 완화되며 수익성이 정상화 되었음. 하반기에는 북미 데이터센터향 액체 냉각 프로젝트의 본격적인 매출 인식이 실적 개선의 핵심 변수.

AI 소프트웨어

바이두(9888.HK/BIDU.US): 홍콩거래소 주요 상장으로 전환

- 8/27 홍콩거래소 2차 상장 지위를 주요 상장으로 자발적 전환한다고 공고, 9/1 발효 예정. 이번 전환으로 홍콩이 나스닥과 동등한 주요 상장 시장으로 격상되며, 종목 약칭의 'S' 표기도 사라질 예정. 신주 발행이나 자금 조달은 수반하지 않고, 6월 말 기준 현금과 투자자산 잔액도 2,831억위안으로 유동성도 충분한 수준. 이번 전환의 핵심은 투자자 저변 확대와 유동성 개선으로 강구통(남향자금) 편입 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9/7 주간 강구통 편입 가능성이 제기됨.

알리바바(9988.HK/BABA.US): 자금 조달 가속화, 경영진 매입액 6억달러 초과

- 8/23 알리바바가 미국 외 비미국 투자자 대상 신주 배정으로 800억홍콩달러를 조달한다고 발표. 2019년 홍콩 상장 이후 첫 신주 배정이자 홍콩 상장사 사상 최대 규모의 2차 발행. 주당 112.7홍콩달러에 7.1억주를 배정하며 최근 증가 대비 약 3.6% 할인된 가격에 신주를 배정. 조달 순액 전액을 풀스택 AI 연구개발에 투입할 계획.
- 8/27 SCMP에 따르면 알리바바 클라우드가 브라질에 데이터센터 2곳을 가동하며 남미 시장에 첫 진출. 현지 기업에 클라우드 인프라와 에이전틱 AI 서비스를 제공하며, 2025년 초 멕시코에 이어 중남미 거점을 확대. 이번 진출로 알리바바 클라우드는 31개 리전과 106개 가용영역을 확보하게 됨.
- 8/25 마윈이 홍콩 주식을 연일 매수하며 매입액이 6억홍콩달러를 초과함. 차이중신 회장과 우용밍 CEO도 약 2억홍콩달러를 매수하며 셋의 매입액이 8억홍콩달러를 상회한 상황. 물량 부담이 불거지자 창업자와 경영진이 직접 매수에 나선 것으로 AI 투자 전략에 대한 자신감을 피력. 투심이 개선되며 8/26 알리바바 주가는 2.6% 상승 마감.

Z.AI(2513.HK): 주간 호출량 1위 모델 모델 GLM-5.3-Flash 공개

- 8/26 OpenRouter와 OpenCode에 익명 모델 'Ox Alpha'로 공개해 주간 호출량 1위에 오른 모델이 Z.AI의 GLM-5.3-Flash였다고 공식 발표. 총 3,200억 파라미터에 추론 시 180억만 활성화하는 GLM-5 시리즈 첫 네이티브 멀티모달 모델로 Artificial Analysis 종합 지능지수 57점으로 클로드 오퍼스 4.8과 동급이면서 가격은 오퍼스의 1/40 수준. MIT 라이선스로 허깅페이스에 가중치를 공개. 전체 트래픽을 국산 AI 칩이 담당한 점도 주목받고 있음.
- 8/19 국가 슈퍼컴퓨팅 인터넷 플랫폼에서 GLM-5.3의 API 호출 서비스를 개시. 별도 환경 설정 없이 로그인만으로 최신 기함 모델을 바로 호출할 수 있어 AI 개발 진입장벽을 낮추는 조치. GLM-5.3는 Artificial Analysis 종합 지능지수 60점으로 클로드 페이블 5-GPT-5.6 Sol 등 폐쇄형 모델과 동급의 글로벌 프런티어 구간에 진입, 오픈소스 모델 중 Kimi K3와 공동 1위. 국산 대형모델의 성능과 접근성이 동반 확대되는 모습.

딥시크(비상장): 기업가치 5천억위안으로 신규 펀딩 마무리

- 8/26 SCMP에 따르면 딥시크가 투자 전 기업가치 약 5,000억위안(740억달러)에 신규 펀딩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돌입. 약 500억위안 조달을 8월 말 마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음. 딥시크는 이르면 연내 상장 신청, 2027년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음. 이번 라운드에는 투자사 모놀리스매니지먼트와 시샹, CATL 등이 투자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지방정부 기관이 지원하는 여러 펀드도 투자에 참여하는 것으로 확인.

AI S/W: 중국 오픈웨이트 모델 사상 최고치 기록

- 8/25 SCMP에 따르면, 미국 웹개발 플랫폼 Vercel의 AI 게이트웨이에서 중국산 오픈웨이트 모델 사용량이 사상 최고를 기록. 8/25 기준 오픈모델 토큰 점유율이 54%로 폐쇄형 46%을 추월. 토큰 사용량 1위는 딥시크 V4-Flash, 상위 5개 중 4개가 중국 모델(StepFun의 Step 3.7 Flash 2위, Z.AI의 GLM-5.2 4위, 딥시크 V4-Flash 0731판 5위)이며 3위만 오픈AI GPT-5.6 Luna. 특히 대량 토큰을 소비하는 자율 에이전트 및 코딩 작업에서 저비용 오픈모델 채택이 확산되는 모습.

산업재

장비광섬(601869.CH): 2Q26 매출/순이익 고성장세 지속

- 장비광섬은 중국을 대표하는 광섬유·광케이블 업체로, 광섬유 프리폼→광섬유→광케이블까지 수직계열화된 생산체계를 구축. 중천과기가 광통신 외에도 해저케이블·전력망·신에너지 등으로 사업이 다각화된 반면, 장비광섬은 광섬유·광케이블 및 광통신 부품 중심으로 매출이 구성돼 광통신 업황에 대한 실적 민감도가 더 높은 기업. 장비광섬 주가는 PER 48배에서 거래 증으로 중천과기 18배 대비 밸류에이션 부담이 높은 상태.
- 2Q26 매출 61억위안으로 YoY +75% 증가, 순이익은 24억위안으로 YoY +1,587% 증가. 전사 GPM은 60.5%로 YoY +31.9%p 제고. 매출 성장은 데이터센터 건설 가속화와 광통신 산업의 수급 구조 개선에 기인, 제품 판매량과 ASP가 모두 상승, 사업 구조 개선에 따른 이익 레버리지 확대.
- 1H26 광전송장비 매출 61억위안으로 YoY +59% 증가, GPM 63.1%로 YoY +33.5%p 제고. 광인터커넥트 부품 매출 22억위안으로 YoY +55% 증가, GPM 49%. 자회사 창신보창의 50G PON 모듈 제품은 대량 공급을 시작. 자회사 장비해양의 가동률이 높은 수준. 2026년 3월 220kV 해저·육상 케이블 프로젝트 5.04억위안 수주, 남중국해 심해 해상풍력 케이블 시장 본격 진입.

전기차

샤오펑(XPEV.US): 순손실 확대, 매출 가이드스 컨센 하회

- 8/25 샤오펑 주가는 순손실 확대와 3Q26 매출 가이드스가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하며 ADR/H주 모두 -9% 하락. 2Q26 매출은 197억위안으로 YoY +8% 증가했으나, 순손실은 -13.4억위안으로 전년 동기 -4.8억위안 대비 확대됐으며 컨센서스 -5.1억위안을 크게 하회. 3Q26 매출 가이드스도 217~234억위안으로 시장 예상치 266억위안을 크게 하회. 중국 내 자동차 수요 부진과 가격 경쟁 심화가 실적 전망에 부담으로 작용. 반면, 해외 사업은 주요 성장동력으로 부상. 2Q26 해외 인도량은 2만대를 상회하며 YoY +81% 증가했고, 해외 사업이 전체 매출의 25% 이상을 차지. 평균 수출 판매가격은 4만유로 이상.

샤오미(1810.HK): 유럽 진출 앞서 웹사이트 개설

- 8/26 2027년 유럽 진출을 앞두고 글로벌 웹사이트 및 해외 SNS 계정을 개설하며 해외사업 준비 본격화. 유럽을 첫 해외 진출 지역으로 확정했으며 딜러·유통 파트너 모집을 시작했고 2027년 3~4분기 공식 해외 판매 개시 예정. 홈페이지에는 SU7, SU7 Ultra, YU7 GT, Sky Nomad, Vision Gran Turismo 등 샤오미의 차량 및 프로젝트 소개. 샤오미 자동차의 해외 전략은 1)개발도상국보다 선진국 우선, 2)중저가보다 중·고가 시장 우선, 3)좌핸들보다 우핸들 시장 우선. 글로벌 웹사이트에는 베이징·상하이·난징·우한과 함께 독일 뮌헨이 샤오미 자동차의 글로벌 R&D 거점으로 기재됨.

로보틱스

자율주행: 법적 책임 체계 구체화, 제도적 기반 마련

- 8/25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도로교통안전법 개정안에 자율주행차 관련법 신설 추진. 해당 개정안은 중국 최고 입법기관에 1차 심의 제출. 자율주행 및 운전자 보조 기능의 사고·교통법규 위반 시 책임 소재 명확화가 핵심. 자율주행 모드 운행 중 교통법규 위반 발생 시 제조사 또는 수입업체가 책임질 수 있도록 규정. 반면, 사람이 직접 운전하거나 운전자 보조 기능만 사용하는 차량에는 기존 교통법규가 그대로 적용. 이는 자율주행 상용화 확대에 앞서 법적 책임 체계를 구체화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판단.

샤오펑(XPEV.US): 로봇 자회사 Dogotix 9억USD 투자 약정

- 샤오펑의 로봇 자회사 Dogotix는 총 9억USD 규모의 투자 약정을 확보. 이 중 샤오펑이 2억USD, 경영진 지배 법인이 1억USD를 투자하고, 나머지 6억USD는 IDG캐피털, 알리바바, 텐센트, 가오룽벤처스 등 외부 투자자로부터 조달. 이는 중국 체화지능 업계의 단일 비상장 투자 기준 최대 규모. 거래 완료 후에도 Dogotix는 샤오펑의 연결 자회사로 유지되며, 추가 투자를 제외할 경우 샤오펑의 지분율은 약 81.97%. Dogotix의 기업가치는 약 63억USD로 평가돼 비상장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 중 상단에 위치하며, 대부분 동종 업체의 기업가치는 10~30억USD 수준인 것으로 파악. 다만, 샤오펑은 휴머노이드 사업의 분사나 독립 상장 계획은 당분간 없을 것으로 밝힘. 또한, 금번 외부 투자는 샤오펑 전체 밸류에이션에서 로봇 사업 가치를 따로 떼어 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샤오펑은 2026년 말 휴머노이드 로봇 IRON 양산을 시작하고, 이후 월 생산능력을 1,000대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 9월부터 IRON의 신규 기능을 순차적으로 공개하고, 초기에는 자사 매장과 사업장에 배치한 뒤 2027년부터 중국 및 해외 소매·서비스업 고객을 대상으로 본격 판매할 예정. 허샤오펑 CEO는 하드웨어 판매와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매출을 합산할 경우 로봇 한 대가 수명주기 동안 창출하는 매출총이익이 자동차보다 크게 높을 것으로 전망.
- Robotaxi 사업에서는 클라우드 원격 개입 플랫폼 개발을 완료했으며, 2027년 안전요원 없는 완전 무인 승객 운송을 목표로 제시. 2027년까지 Robotaxi의 기술 및 원가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중국 및 해외 주요 모빌리티 플랫폼과 협력해 핵심 도시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

립모터(9863.HK): 체화지능 로봇 분야 진출

- 8/24 립모터는 체화지능 로봇 분야 진출 계획을 공식 확인했으며, 조만간 사업 세부 내용을 발표할 예정. 다만 구체적인 제품 형태와 개발 진행 상황, 투자 규모는 공개하지 않음. 7월 말 설립된 자회사 후저우 링성 정밀제조업 사업 범위에 산업용 로봇 제조, 지능형 로봇 R&D, 자동차 부품 생산 등이 포함돼 로봇 사업 진출을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

휴머노이드 로봇: 로봇 AI 모델 스타트업, 2027년말 체화지능 ChatGPT 모델트에 도달 예상

- 중국 embodied AI 스타트업 ACE Robotics 경영진은 월드모델과 환경 데이터 수집을 기반으로 2027년 말 체화지능의 ChatGPT 모델트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 다만, 기술적 변곡점에 도달하더라도 다양한 산업에서 광범위하게 상용화되기까지는 추가로 4~5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ACE는 유니트리, AgiBot, Fourier 등 중국 휴머노이드 로봇에 embodied AI 모델을 적용 중. 모델 학습에는 엔비디아뿐 아니라 Rhino Tech, Digua Robotics 등 중국 업체의 AI 칩도 사용하며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있음.

휴머노이드 로봇: 세계로봇대회, 실제 작업 수행 능력 검증에 초점

- 올해 세계로봇대회(WRC)는 전체 51개 종목 중 21개를 산업·실생활 시나리오로 구성했으며, 전체 종목의 40% 이상에서 완전 자율 수행을 요구. 투자자들은 로봇의 경제적 가치를 입증하기 위해 춤이나 운동 같은 퍼포먼스보다 실제 현장 배치를 더욱 중요하게 보고 있음. 따라서 금번 세계로봇대회에서는 EV 충전, 케이블 연결, 산업 조립 등 실제 작업 수행 능력에 대한 검증이 확대되고 있음.

리오토(LI.US): 로봇 두뇌 개발 전문가 영입, 테슬라/샤오핑과 차별화된 전략

- 8/27 리오토는 로봇의 두뇌 개발 강화를 위해 월드모델 전문가를 영입. 해당 전문가는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을 총괄하며, 관련 조직은 50명 미만의 소규모 인력으로 운영할 계획. 현재 리오토는 스마트 콧팻, 자율주행, 로봇용 파운데이션 모델을 각각 개발 중이며, 스마트 콧팻과 자율주행에는 각각 MindGPT 3.1과 MindVLA-o1을 적용하고 로봇용 모델은 별도로 개발할 예정. 이는 자율주행과 로봇에 동일한 AI 모델을 활용하려는 테슬라·샤오핑과 차별화된 전략. 리오토는 인터넷에서 확보한 범용 공간 및 월드 데이터셋으로 모델을 선행 학습한 뒤 로봇 데이터를 추가해 다양한 로봇 형태·작업·환경에 대한 범용성을 높일 계획. 리오토는 2024년 말 'Nexus'라는 코드명의 로봇 프로젝트를 시작했으며, 올해 첫 2륜 로봇을 공개해 초기에는 공장 제조 현장에 적용할 예정. 이와 함께 이족보행 로봇도 개발 중. 한편, 지난 1년간 리오토의 자율주행·반도체·로봇 부문에서 핵심 임원 13명이 퇴사한 것으로 파악.

리더드라이브(688017.CH): 2Q26 Re: 매출 컨센서스 하회, 수익성 악화

- 리더드라이브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핵심 부품인 하모닉 감속기 제조업체로 주목받으며 주가가 YTD +58% 상승. 하모닉 감속기는 휴머노이드 로봇 1대당 통상 약 20개가 탑재. 일본 하모닉드라이브가 중국산 제품으로 빠르게 대체되면서 리더드라이브의 중국 하모닉 드라이브 출하량 점유율은 28%로 1위. 하모닉 감속기를 채택한 중국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에서 리더드라이브의 점유율 80%로 추정. 리더드라이브는 UBTech와 AgiBot 등 주요 휴머노이드 업체를 고객사로 확보, 테슬라와 Figure AI에도 소규모 물량을 납품한 이력이 있어 향후 휴머노이드 시장 확대에 따른 직접적인 수혜 기대.
- 2Q26 매출은 2억위안(YoY +36%)으로 컨센서스를 8% 하회, 순이익은 3,750만위안(YoY +13%)으로 시장 기대치를 하회. 전사 GPM은 31.1%로 YoY -3.9%p, QoQ -2.3%p 하락 영업이익률/순이익률도 각각 QoQ -5.8%p/-5.3%p 하락. 중국 하모닉 감속기 시장의 경쟁 심화에 따른 ASP 하락 압력과 제품 믹스 변화가 수익성에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 1H26 매출의 83%를 차지하는 하모닉 감속기 매출은 YoY +46% 증가했지만 마진율은 32.8%로 YoY -1.5%p 하락. 기계설비 사업부 역시 매출은 YoY +31% 증가한 반면 마진율은 29.8%로 YoY -9.8%p 하락. 반면, 해외 매출은 YoY +78% 증가하며 매출 비중이 전년 동기 11%에서 15%까지 상승한 점은 긍정적.
- 리더드라이브는 하모닉 감속기 생산능력을 2025년 43만대에서 2026년 100만대, 2027년 200만대까지 확대 계획. 홍콩거래소 상장을 추진 중. 중국 휴머노이드 시장 확대의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되고 중장기 성장 가시성도 높지만, 현재 주가는 12MF P/E 286배에서 거래되고 있어 단기 밸류에이션 부담이 높은 상황. 향후 휴머노이드향 매출 확대와 실적 성장을 확인하며 중장기적으로 접근할 것을 권고.

소비/미디어**하이다라오(6862.HK): 배달 사업과 서브브랜드 높은 성장 추세 지속**

- 8/26 발표한 1H26 매출액과 순이익은 223.4억(+7.9%, YoY)/17.7억위안(+0.5%) 기록하며 각각 컨센서스 1.1%/0.9% 하회. 하이다라오 매장수는 1,389개로 직영 1,290개, 가맹 99개, 가맹점은 전년 대비 58개 증가하였음. 하이다라오의 배달 사업은 현재 높은 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제품 포트폴리오 확대와 배달 거점 구축이 지속됨에 따라 향후에도 주요 매출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전망. 서브 브랜드 레스토랑은 약 183개를 운영 중이며, 향후 검증된 비즈니스 모델을 중심으로 출점을 가속할 계획이라고 밝힘.

Xtep(1368.HK): 세컨브랜드 호조에 GPM 개선

- 8/25 발표한 Xtep의 1H26 매출액은 68.0억위안(YoY -0.6%)으로 컨센서스 2.8% 하회, 순이익 8.2억위안(YoY -10.5%)으로 컨센서스 1.2% 상회. 주력 브랜드의 매출은 감소했으나 전문 스포츠 브랜드인 Saucony와 Merrell 성공으로 GPM은 +1.4%p 상승한 46.4%을 기록.

중국 1등주 포트폴리오 현황

편입 종목	주간 수익률 (%)	PER (배)	ROE (%)	매출(YoY, %)		순이익(YoY, %)		EPS 성장률 (%)	EPS 변동률 (%p)	실적 발표일
				2026E	2027E	2026E	2027E			
CXMT(688825.CH)	1.9	23.9	71.9	413.5	71.1	8,276.0	83.8	42,842.4	1,527.4	2026-08-28
기가디바이스(603986.CH)	0.5	24.4	44.7	184.4	29.5	679.2	39.5	607.4	54.8	2026-10-28
캠브리콘(688256.CH)	1.3	113.3	38.0	171.7	115.4	193.9	98.7	186.5	1.2	2026-10-19
해광정보(688041.CH)	(0.1)	126.0	17.6	56.3	46.1	81.6	63.0	81.7	0.0	2026-10-15
비렌테크(6082.HK)	4.0	-	4.8	132.0	251.0	적지	흑자	적지	0.0	2026-08-28
일루바타코어엑스(9903.HK)	0.2	-	(14.6)	177.7	142.2	적지	흑자	적지	(1.9)	2026-08-28
북방화창(002371.CH)	0.5	67.8	17.4	28.1	31.1	38.0	49.0	37.4	(2.3)	2026-10-30
AMEC(688012.CH)	3.7	79.9	15.4	36.8	39.2	102.2	23.0	168.2	25.5	2026-10-29
SMIC(0981.HK)	(1.7)	51.1	6.1	26.9	20.0	106.8	28.4	101.2	8.0	2026-11-13
JCET(600584.CH)	(2.6)	60.0	7.3	12.6	15.2	47.8	43.3	53.9	(1.1)	2026-10-23
란치테크놀로지(688008.CH)	10.3	71.0	21.9	37.0	45.9	59.8	53.3	62.8	(0.2)	2026-08-28
빅토리아언트(300476.CH)	3.7	27.8	27.1	68.8	76.5	103.1	83.5	78.7	(5.2)	2026-10-27
중지쉬창(300308.CH)	(8.2)	31.9	62.1	170.2	84.6	199.9	89.0	182.0	5.4	2026-10-30
폭스콘산업인터넷(601138.CH)	1.6	21.8	31.2	63.3	37.4	74.0	34.0	71.0	0.0	2026-10-29
즈푸AI(2513.HK)	2.7	-	7.4	513.7	197.0	적지	적지	적지	(0.0)	2026-08-31
알리바바(BABA.US)	(2.5)	17.7	8.2	10.5	12.7	(14.4)	48.1	114.2	(4.3)	2026-11-25
텐센트(0700.HK)	(2.0)	13.3	18.7	9.9	9.4	2.6	6.1	24.3	(0.1)	2026-11-13
바이두(BIDU.US)	4.0	16.4	4.3	(1.4)	6.2	103.6	24.4	(12.5)	(2.0)	2026-11-18
레노버(0992.HK)	3.2	14.9	36.8	28.0	17.8	55.0	74.2	71.8	2.7	2026-11-16
샤오미(1810.HK)	(5.3)	24.2	8.8	(4.4)	19.0	(36.2)	23.5	(19.4)	(2.5)	2026-11-16
유비테크(9880.HK)	(1.1)	-	(5.0)	94.0	37.9	적지	흑자	적지	0.0	2026-08-28
BYD(1211.HK)	(2.0)	18.3	15.0	13.3	10.0	17.8	27.1	29.2	0.0	2026-08-28
CATL(300750.CH/3750.HK)	(4.6)	17.8	24.6	46.5	22.1	32.8	24.1	39.3	(0.0)	2026-10-20
양광전력(300274.CH)	(12.6)	13.7	26.2	13.6	20.1	7.7	24.0	15.1	0.0	2026-08-28
선도지능(300450.CH/0470.HK)	(0.4)	22.3	17.0	31.2	27.6	60.2	38.6	54.1	0.0	2026-08-28
허사이테크(HSAI.US)	(8.4)	35.2	5.7	42.2	41.2	15.9	69.9	11.9	(11.5)	2026-11-11
중천과기(600522.CH)	7.9	19.4	16.8	23.3	14.6	156.2	40.4	117.9	1.2	2026-10-27
사원전기(002028.CH)	(13.2)	27.3	23.0	31.2	30.5	32.5	38.0	31.3	0.0	2026-10-19
동방전기(600875.CH)	(1.1)	18.2	10.1	11.4	9.1	32.8	26.7	26.6	0.5	2026-10-30
평균	(0.7)	38.3	19.6	84.2	51.0	417.2	46.1	1,799.1	55.0	

주1: PER, ROE, EPS 성장률은 2026년 전망치 기준, EPS 변동률은 전주대비 기준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백승혜, 송예지)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 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2026년 8월 28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이상 보유 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백승혜, 송예지)는 2026년 8월 28일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조사항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